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2016. 07. 25. ~ 07. 31. 주간

95 VOL

전남농업정보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휴가철 채소 가격

· 복숭아 · 포도 · 사과 · 배 생산, 출하, 가격 전망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영암 낭주멜론 일본시장 첫 수출 길

· 지역색 담긴 모싯잎 송편 세계 곳곳에 홍보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동계작물 보리 · 밀 우량종자 분양합니다

· 무화과 무가온 보온재배로 수확시기 한 달 앞당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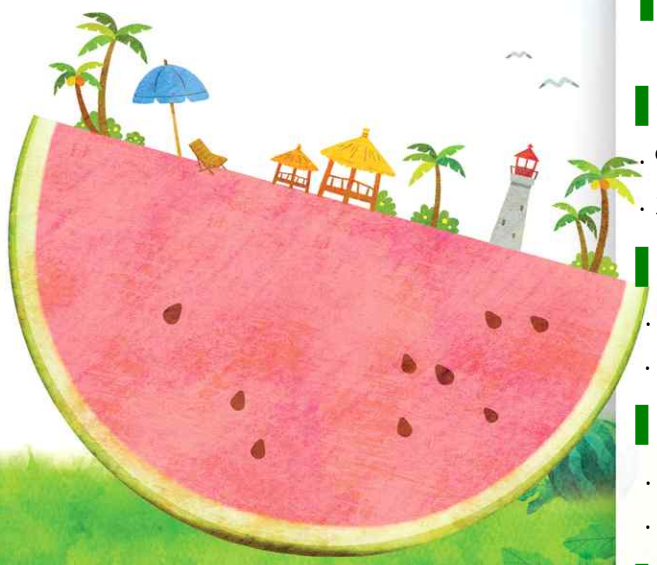
정책동향

· 농촌교육 활성화 협약

·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신청 및 홍보

· 올해 파종할 보리 · 밀 보급종 신청하세요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 ····· 5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고, 대기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음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강수량은 평년(4~10mm)보다 적겠음

❀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 8

▸ 휴가철 채소 가격

▸ 복숭아·포도·사과·배 생산, 출하, 가격 전망

❀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13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5

▸ 순천시, 미생물 배달제 8월부터 시범운영

▸ 나주시, 지역농협과 농업소득원 발굴에 협력 강화

▸ 담양군, 보기 좋은 '고서포도' 먹기도 좋다

▸ 보성군, 벼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용으로 풍년농사 준비

▸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고품질 서비스 제공

▸ 강진군, 벼 무논점파농법 현장에서 답을 찾다

▸ 완도군, 완도자연그대로 해변포도 첫 수확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22

▸ 영암 낭주멜론 일본시장 첫 수출 길

▸ 지역색 담긴 모싯잎 송편 세계 곳곳에 홍보

▸ 농식품부, 시설원예 수출경쟁력 제고 나선다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25

▸ 다래 '해연'의 식미 당도를 높이기 위한 수확기 당도와 저장기간

▸ 분화국화 수익성 및 전업농 경영모형

▸ 분화철쭉 수익성 및 전업농 경영모형

▸ 벼메뚜기를 이용한 육계 첨가 사료

▸ 동계작물 보리·밀 우량종자 분양합니다

▸ 무화과 무가온 보온재배로 수확시기 한 달 앞당겨

▸ 농업기계 트랙터·밭작물작업기반 교육 실시

▸ 담양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도 '농업용 드론'으로 스마트하게

▸ 최고의 여름 사과 썸머킹·썸머프린스 맛본다

▸ 친환경 과수 재배기술, 새로운 길 열려

❀ 정책 동향 ····· 38

▸ 농촌교육 활성화 협약

▸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폭염… 가축 질병 방역관리 철저를

▸ 한우 사육, 번식 위주 일관사육 체계로 전환을

❀ 해외 농업정보 ····· 43

▸ 미국 GMO표기 의무화 눈앞

▸ 간식·냉동식품, 중국시장 진출 유망

▸ 해외 곡물시장 동향 '2016. 07. 25.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수로 인해 전일 대비 1.8% 상승 마감하였음.

· 옥수수 :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주 말에 앞서 투자 펀드 약세장이 마무리 되고 주 초반의 약세를 회복하며 전일 대비 0.2% 상승 마감하였음.

· 대두 : 미국 중서부 지역의 충분한 비가 예보되었고 또한 수확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2.5% 하락 마감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46

▸ 올해 파종할 보리·밀 보급종 신청하세요

▸ GAP농산물, 이제부터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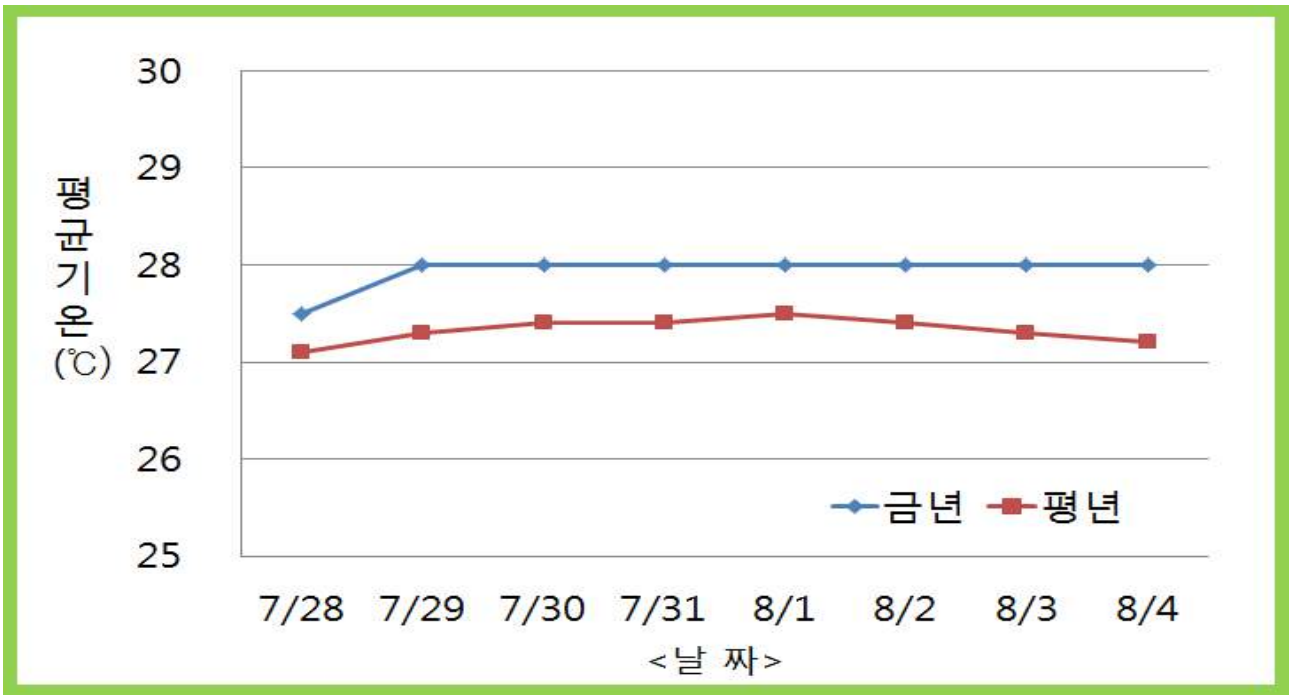
▸ 해외여행 "망고 등 열대과일은 No!"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월·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7.9	27.3	0.6	31.9	31.8	0.1	24.0	24.0	0.0	6.4
7. 28.(목)	27.5	27.1	0.4	31.0	31.5	-0.5	24.0	23.8	0.2	4.6
7. 29.(금)	28	27.3	0.7	32.0	31.8	0.2	24.0	23.9	0.1	4.0
7. 30.(토)	28	27.4	0.6	32.0	31.9	0.1	24.0	24.1	-0.1	5.2
7. 31.(일)	28	27.4	0.6	32.0	31.9	0.1	24.0	24.1	-0.1	6.0
8. 01.(월)	28	27.5	0.5	32.0	32.0	0.0	24.0	24.1	-0.1	7.2
8. 02.(화)	28	27.4	0.6	32.0	31.9	0.1	24.0	24.1	-0.1	8.7
8. 03.(수)	28	27.3	0.7	32.0	31.8	0.2	24.0	23.9	0.1	8.3
8. 04.(목)	28	27.2	0.8	32.0	31.8	0.2	24.0	23.7	0.3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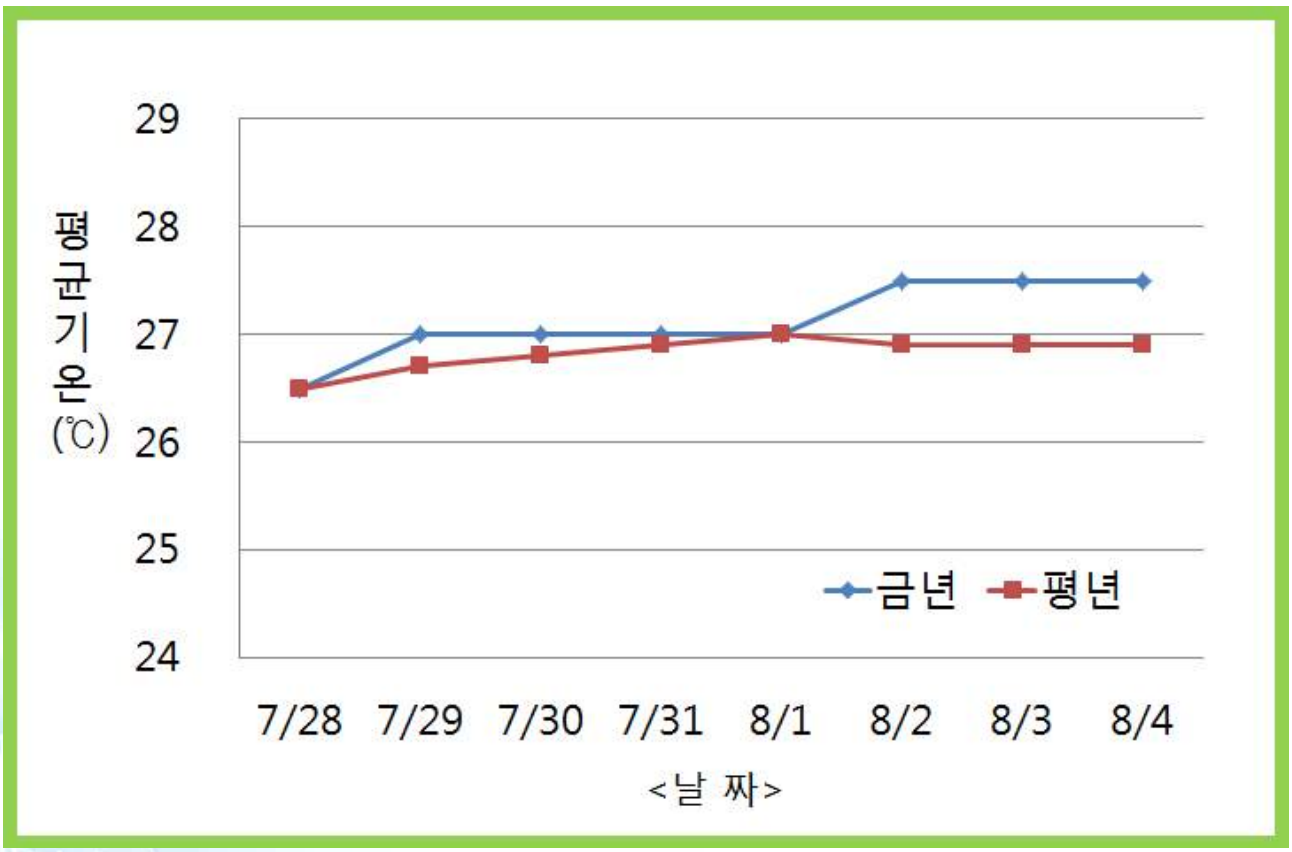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7.1	26.8	0.3	30.3	30.8	-0.5	24.0	23.9	0.1	4.0
7. 28.(목)	26.5	26.5	0.0	29.0	30.3	-1.3	24.0	23.6	0.4	4.4
7. 29.(금)	27	26.7	0.3	30.0	30.5	-0.5	24.0	23.8	0.2	3.8
7. 30.(토)	27	26.8	0.2	30.0	30.7	-0.7	24.0	23.9	0.1	3.5
7. 31.(일)	27	26.9	0.1	30.0	30.8	-0.8	24.0	24.0	0.0	4.1
8. 01.(월)	27	27.0	0.0	30.0	31.0	-1.0	24.0	24.0	0.0	3.7
8. 02.(화)	27.5	26.9	0.6	31.0	30.9	0.1	24.0	24.0	0.0	4.3
8. 03.(수)	27.5	26.9	0.6	31.0	31.0	0.0	24.0	24.0	0.0	4.0
8. 04.(목)	27.5	26.9	0.6	31.0	31.0	0.0	24.0	23.9	0.1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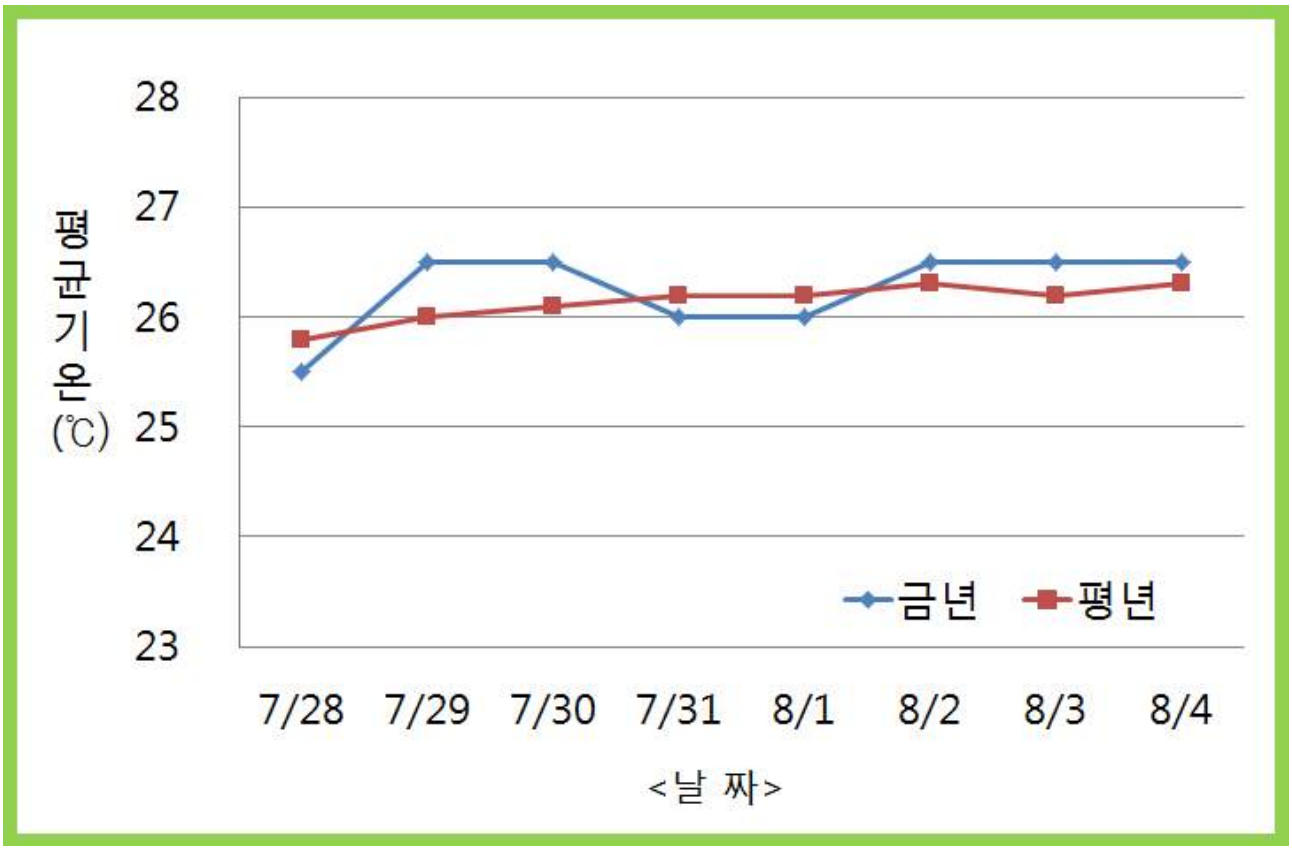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월·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6.3	26.1	0.1	28.5	29.2	-0.7	24.0	23.8	0.2	5.7
7. 28.(목)	25.5	25.8	-0.3	27.0	28.8	-1.8	24.0	23.6	0.4	6.7
7. 29.(금)	26.5	26	0.5	29.0	29.1	-0.1	24.0	23.7	0.3	6.2
7. 30.(토)	26.5	26.1	0.4	29.0	29.1	-0.1	24.0	23.8	0.2	6.7
7. 31.(일)	26	26.2	-0.2	28.0	29.2	-1.2	24.0	23.8	0.2	6.7
8. 01.(월)	26	26.2	-0.2	28.0	29.3	-1.3	24.0	23.9	0.1	5.1
8. 02.(화)	26.5	26.3	0.2	29.0	29.4	-0.4	24.0	23.9	0.1	5.5
8. 03.(수)	26.5	26.2	0.3	29.0	29.4	-0.4	24.0	23.9	0.1	5.0
8. 04.(목)	26.5	26.3	0.2	29.0	29.5	-0.5	24.0	23.8	0.2	3.8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휴가철 채소 가격

❑ 주요 채소류 가격, 지난주를 기점으로 하향 안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농산물유통정보(KAMIS) 도매가격조사 결과 최근 폭염과 장마의 영향으로 상추나 깻잎 등의 채소 가격이 일시 상승한 바 있으나, 7월 중순을 기점으로 기상여건이 호전되면서 산지작업이 회복되어 출하량이 증가해 점차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 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상추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50.2% 하락, 깻잎은 34.3, 풋고추는 23.7, 양배추 18.8, 오이도 9% 하락 하였다.

○ aT관계자는 "향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장마가 끝나고 기상여건이 양호하면 산지 출하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물량도 꾸준히 공급될 것으로 보여 하향 안정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요 채소류 주간 도매가격 현황

구 분	단위	7/14(목) (B)	7/15(금)	7/18(월)	7/18(화)	7/20(수)	7/21(목) (A)	전주대비 증감(B/A)
배 추	1kg	840	840	840	820	790	760	△ 9.5
시금치	4kg	19,000	18,600	20,400	20,000	18,800	18,600	△ 2.1
청상추	4kg	48,600	48,000	42,000	33,600	27,600	24,200	△50.2
양배추	10kg	6,400	6,800	6,900	6,200	5,200	5,200	△18.8
수 박	1개	17,600	17,200	15,400	15,200	15,000	14,800	△15.9
다다기오이	10kg	22,333	24,000	22,000	20,667	18,333	20,333	△ 9
참 외	10kg	26,200	26,200	26,600	25,400	25,200	25,600	△ 2.3
풋고추	10kg	11,400	11,600	12,800	11,800	12,000	12,200	△23.7
깻 잎	2kg	28,600	28,800	26,000	24,800	20,400	18,800	△34.3

복숭아 생산, 출하, 가격 전망

❑ 생산 전망 : 생산량 전년보다 16% 증가 전망

○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단수가 늘어 전년보다 16% 많은 25만 2천톤으로 전망된다.

○ 품종별로는 천도계 생산량이 전년보다 20% 증가한 4만 4천톤으로 전망된다. 전년에는 개화기 저온피해로 단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기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

○ 유모계 복숭아 생산량도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보다 15% 많은 20만 7천톤으로 전망된다.

○ 숙기별 생산량은 조생종의 경우 전년보다 18%, 중·만생종은 각각 16,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 전망 : 7~8월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7월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4% 많고, 8월에는 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 7월 백도 가격 전년보다 하락 전망

○ 7월 백도(유모계)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만 8천원)보다 낮은 상품 4.5kg 상자에 1만 5천~1만 7천원으로 전망된다.

포도 생산, 출하, 가격 전망

❑ 생산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 전년보다 6% 감소 전망

○ 올해 포도 생산량은 전년보다 6% 감소한 25만 6천톤으로 전망된다. 개화 이후 기상호조로 생육은 양호하지만, 최근 2~3년간 포도 가격 약세로 인해 폐업한 농가가 많아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7%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출하 전망 : 7월 포도 출하량 전년보다 감소할 듯

○ 7월 포도 출하량은 생산량 감소로 지난해보다 3% 적고, 8월에도 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FTA 폐업지원으로 축소된 면적의 상당 부분이 캠벨얼리 품종인 것으로 파악되어 거봉 등 다른 품종에 비해 캠벨얼리 출하량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가격 전망 : 7월 포도 가격 지난해보다 낮을 전망

○ 7월 포도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적지만, 대체과일인 복숭아와 자두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포도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캠벨얼리 도매가격은 지난해(8천원)보다 낮은 상품 2kg 상자에 6,500~7,500원, 거봉도 지난해(1만 1천원)보다 낮은 1만~1만 1천원으로 전망된다.

사과 생산, 출하, 가격 전망

❑ 생산 전망 : 생산량 지난해보다 4% 감소 전망

○ 올해 사과 생산량은 과다착과였던 지난해보다 4% 적지만, 평년보다는 많은 56만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3% 늘었지만, 착과수 감소로 단수가 6% 적을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 지역별로는 충청과 경북지역의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8, 4% 감소하지만, 경남은 착과수 감소가 크지 않아 오히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 전망 : 7월 저장사과 출하량 지난해보다 30% 증가, 햇사과는 비슷할 듯

○ 2015년산 저장사과의 7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30% 많겠으며, 햇사과는 생산량이 감소하였지만 출하시기가 당겨짐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할 전망, 이에 따라 7월 전체 사과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20%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가격 전망 : 7월 사과 가격 지난해보다 낮을 듯

○ 2015년산 저장사과인 후지 7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지난해(4만원)보다 낮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4천~2만 6천원으로 전망된다.

○ 햇사과인 쓰가루 7월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지난해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저장사과 가격 약세가 지속되어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 생산, 봉지수, 가격 전망

❑ 생산 전망 : 올해 배 생산량 지난해보다 7% 증가 전망

○ 올해 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 증가한 27만 9천톤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4% 감소하였으나, 작황호조로 단수가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지역별로는 경기·강원과 충청지역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각각 2,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과 영남지역은 지난해보다 생육이 매우 원활하여 단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량은 각각 10, 15%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봉지수 : 배 봉지수 지난해보다 15% 증가 추정

○ 올해 단위면적(10a)당 배 봉지수는 개화기 저온 피해로 수정이 불량했던 지난해보다 착과수가 많아 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지난해에 저온피해가 심했던 호남과 영남지역의 봉지수가 지난해보다 각각 25, 19%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던 경기·강원과 충청지역은 각각 8, 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가격 전망 : 7월 배 가격 출하량 적어 지난해보다 높을 전망

○ 7월 이후 2015년산 배 출하량은 저장량 감소와 상품성 저하로 지난해보다 45%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7월 신고 도매가격은 지난해(2만 3천원)보다 높고, 평년(5만 3천원)보다는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4만 3천~4만 7천원으로 전망된다.

○ 2015년 7월에는 햇배 출하 전에 저장 배 잔여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출하량이 크게 늘면서 가격이 지난해보다 68% 낮았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6. 07. 25.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25)	1주일전 (07/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6,200	36,200	36,200	39,800	41,467	▼ 9.0	▼ 12.7
	콩(백태)	35kg	152,000	152,000	150,000	139,000	186,133	▲ 9.4	▼ 18.3
	고구마(밤)	10kg	27,400	27,200	29,550	34,050	34,643	▼ 19.5	▼ 20.9
	감자(수미)	20kg	19,200	18,800	20,600	25,450	23,627	▼ 24.6	▼ 18.7
채소류	배추(봄)	1kg	740	840	643	580	667	▲ 27.6	▲ 10.9
	양배추	10kg	5,200	6,900	6,925	6,550	5,697	▼ 20.6	▼ 8.7
	오이(다다기계통)	10kg	21,333	22,000	14,250	26,944	28,080	▼ 20.8	▼ 24.0
	애호박	8kg	10,800	17,600	13,700	15,500	16,593	▼ 30.3	▼ 34.9
	토마토	10kg	16,400	16,800	13,550	19,850	20,070	▼ 17.4	▼ 18.3
	당근	20kg	29,800	30,200	30,600	31,000	33,173	▼ 3.9	▼ 10.2
	건고추(화건)	60kg	660,000	680,000	710,000	820,000	834,000	▼ 19.5	▼ 20.9
	풋고추	10kg	43,400	49,600	35,350	28,000	36,777	▲ 55.0	▲ 18.0
	마늘(깐마늘)	20kg	138,000	142,000	174,500	131,000	105,293	▲ 5.3	▲ 31.1
	양파	20kg	14,400	14,000	13,900	24,050	15,653	▼ 40.1	▼ 8.0
	대파	1kg	1,450	1,640	1,785	1,960	1,413	▼ 26.0	▲ 2.6
	파프리카	5kg	12,800	14,600	13,400	12,400	18,147	▲ 3.2	▼ 29.5
	멜론	8kg	19,200	19,200	24,300	16,950	21,733	▲ 13.3	▼ 11.7
	방울토마토	5kg	15,000	16,000	11,800	12,300	11,980	▲ 22.0	▲ 25.2
	수박	1개	15,000	15,400	14,050	14,100	15,100	▲ 6.4	▼ 0.7
과일류	사과(후지)	10kg	38,800	37,800	37,500	44,533	54,356	▼ 12.9	▼ 28.6
	배(신고)	15kg	54,800	49,600	46,000	39,600	64,667	▲ 38.4	▼ 15.3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7/25)	1주일전 (07/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8,000	536,000	536,000	532,000	556,000	↑ 1.1	↓ 3.2
	느타리버섯	2kg	13,600	15,000	14,825	16,350	14,083	↓ 16.8	↓ 3.4
	새송이버섯	2kg	7,200	7,600	7,800	7,600	7,613	↓ 5.3	↓ 5.4
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832	7,845	7,748	7,086	6,206	↑ 10.5	↑ 26.2
	돼지고기(삼겹살)	100g	2,150	2,122	2,325	2,270	2,117	↓ 5.3	↑ 1.6
	닭고기	1kg	5,224	5,789	5,724	4,970	5,719	↑ 5.1	↓ 8.7
	계란(특란)	30개	5,329	5,075	5,330	5,790	5,622	↓ 8.0	↓ 5.2
	우유	1리터	2,549	2,549	2,549	2,548	2,385	-	↑ 6.9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6. 07. 25.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6,040 천원	6,055 천원	5,107 천원	↓ 0.2	↑ 18.2
	거세	6,934 〃	7,298 〃	6,567 〃	↓ 4.9	↑ 5.5
송아지 (6~7월)	암	3,190 〃	3,254 〃	2,638 〃	↓ 1.9	↑ 20.9
	수	3,934 〃	4,004 〃	3,161 〃	↓ 1.7	↑ 24.4
육우(600Kg)		2,872 〃	3,151 〃	3,317 〃	↓ 8.8	↓ 13.4
젖소수송아지(7일령)		405 〃	386 〃	263 〃	↑ 4.9	↑ 53.9
돼지(110kg)		385 〃	364 〃	264 〃	↑ 5.7	↑ 45.8
육계(원/kg)		1,516 원	1,582 원	1,412 원	↓ 4.1	↑ 7.3
계란(원/특란10개)		1,035 〃	1,059 〃	1,217 〃	↓ 2.2	↓ 14.9
오리(원/kg)		1,667 〃	1,667 〃	2,333 〃	-	↓ 28.5

※ 한우(거세우) 생산비 : 7,260천원/마리 (△326) * (5,658 − 2,332 + 3,934 = 7,260천원)
('15년 생산비) ('15년 송아지 가격) (현재 수 송아지 가격)

- 육우 3,798, 돼지 297/110kg,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순천시, 미생물 배달제 8월부터 시범운영

○ 순천시가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 이용이 편해질 전망이다.

○ 미생물 배달제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미생물 필요량을 사전에 신청 받아 읍·면사무소나 영농조합법인 단체 사무실까지 주1회 순회 배달한다.

○ 배달제는 오는 8월 11일부터 시범운영해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 아울러 미생물 대금의 수납방법을 개선해 고지서에 의한 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신용카드도 가능하게 개선해 최근 늘고 있는 미생물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 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생산 공급중인 미생물은 7종에 연간 380톤이다.

○ 시는 2009년도에 미생물 생산시설을 설치해 4종의 액상미생물을 공급해 왔으며 2014년에는 물에 희석해서 써야 하는 액상미생물의 문제점을 보완해 고형미생물 공급을 추가로 실시했다.

○ 미생물 활용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편사항을 꾸준히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생물의 자체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저감용 미생물을 개발해 2015년도에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농업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 출처 : 순천시

나주시, 지역농협과 농업소득원 발굴에 협력 강화

– 상생 협력사업 추진계획 설명회 갖고, 특화작목 등 발굴 육성 노력 –

○ 나주시와 농협이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소득원 발굴을 위해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나주시에서는 지난 15일 지자체와 농협 상생 협력사업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등 새로운 농업소득원을 발굴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 시는 이번 추경에서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금까지 고정투자 사업의 지원방식을 탈피, 공모를 통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작목이나 대체 소득작물 등을 발굴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각 지역농협과 배원협, 나주축협 등으로 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밀도 있는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강인규 나주시장은 “그동안 생산비 절감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여 각 지역마다 공동육묘장·농산물산지유통센터·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등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이제는 고정투자사업 위주에서 농업인에게 직접 소득이 될 수 있는 각 지역에 맞는 특화작목이나 6차산업 등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지자체와 농협·농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간다면 좋은 사업이 발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출처 : 나주시

담양군, 보기 좋은 '고서포도' 먹기도 좋다

– 소비 트렌드 맞춘 소포장 디자인 개발로 소비자 구매욕구 유발 –

○ 담양군이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추세에 맞춘 소포장 디자인 개발로 지역 농식품의 상품성을 향상하고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 군에 따르면 최근 소용량 농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에 따라 신선함과 건강함을 강조한 소포장 판매 전략을 적극 추진, 고서포도 1.5, 3kg 소포장 디자인을 개발해 소비자의 구매욕을 상승시키는 등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나섰다.

○ 군은 관내 생산 농식품 생산자 및 농업단체 중 자체 포장디자인 개발이 어려운 업체, 제품 포장 개선이 시급하거나 개선 후 뚜렷한 효과가 기대되는 업체,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업체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 디자인 개발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만 해도 죽로차·담스쌀맥주·순우리 블루베리100·가라실마을두부·죽향쌀·담양딸기 등 10여개의 제품이 디자인 변경을 완료해 타 지역 제품과의 차별화를 두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는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최형식 담양군수는 "디자인도 하나의 경쟁력"이라며 "소규모 식품 업체나 생산자 단체가 어려워하는 포장재 디자인 개발에 군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나섬으로써 지역 농산물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출처 : 담양군

보성군, 벼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용으로 풍년농사 준비

○ 보성군에서는 벼 중만생종의 출수기가 도래함에 따라 농가 소득 향상 및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용에 대한 영농기술 지도에 나섰다.

○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출수기 정밀판단으로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용과 이삭도열병 사전방제가 금년 벼농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전 지도력을 총동원,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1개월 동안 12개반 30명으로 중점 지도반을 편성 출수 전후 현장기술 지도에 나서고 있다.

○ 이삭거름을 주는 적기는 이삭패기 20~25일 전으로 벼 줄기 속 어린 이삭 길이가 1~2㎜ 정도 자라난 상태이며, 보통 논을 기준으로 10a당 전용복비는 11~12kg, 맞춤형 비료는 15kg을 시용하면 된다.

○ 그러나 벼 잎이 짙은 녹색을 띠는 논은 질소비료를 적게 주거나 생략하고, 염화가리를 10a당 4~5kg 주어야 한다. 보성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새누리와 황금누리 품종의 경우 이삭거름 시용 적기는 7월 21일부터 25일경으로 보고 있으며, 이삭이 패는 시기는 물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로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벼 이삭도열병은 이삭 패는 시기를 전후로 비가 자주 내리고 기온이 낮으면 이삭 목에 감염이 되는 병으로 일단 걸리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삭이 2~3개 팰 때, 잎 도열병이 발생한 논이나 발생이 우려된 논은 예방위주로 방제를 해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으며, 이에 병해충 예찰반을 6개반 30명으로 편성·운영하여 병해충 발생 상습지 및 취약지 등을 중점 예찰하는 등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 한편 보성군은 8,635ha 벼농사에서 새누리, 황금누리 등 89%가 중만생종으로 재배되고,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9년 연속 선정, 러브미(米) 2회 선정 등 전국 최고의 쌀을 생산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670억원의 조수입으로 작목별 총 조수입 순위 1위 자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 출처 : 보성군

화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고품질 서비스 제공

- 농업기술센터 시범전시포에 벼 5개 품종 전시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흰잎마름병에 강한 5품종을 춘양면 우봉리에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어 농업인에게 눈길을 끌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 시범전시포 운영은 지역에 적합한 벼 품종을 한자리에 비교 전시하여 농업인들에게 품종 선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전시된 품종은 '운일찰·수보·친들·영호진미·해품' 등 5가지 품종으로 흰잎마름병에 강한 품종뿐만 아니라 밥맛이 우수하고 쓰러짐에 강한 품종들로 6.14. 모내기하여 10월 중순경 수확할 예정이다.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조영순 소장은 "지역에 적합한 벼 우수품종 선택기회를 제공하고자 시범전시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들이 우수 품종 선택으로 고품질 쌀을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강진군, 벼 무논점파 농법 현장에서 답을 찾다

– 벼농사 중기 생육상황 비교 평가로 재배기술 정립 –

○ 전남 강진군은 지난 19일 농업인과 관계공무원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 무논점파 현장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는 생육 중기에 접어든 무논점파 농법 논의 현재 생육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성공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관내 우수단지인 강진읍 팔영단지, 목리단지와 국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 현장평가, 농촌진흥청 직파전문가와 현장교육으로 이뤄졌다.

○ 강진군은 지난해 벼 무논점파 농법을 대대적으로 보급한 이후 올해는 농업인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700ha에 벼 무논점파를 추진하고 있다.

○ 벼 무논점파 기술 도입 2년차에 접어들면서 직파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신과 우려가 해소돼 직파기술 정착과 확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에는 벼 무논점파 측조시비 지원사업을 시도해 20개단지 365ha에 벼 직파를 추진, 2억 4천만원의 생산비 절감 성과를 거뒀다.

○ 강진원 군수는 “벼 무논점파 농법은 저비용 고효율 혁신농법으로 기술도입 2년차 최단기간에 정착된 벼 재배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고령화, 여성화된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므로 앞으로도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새벽영농기술지원, 현장컨설팅 등에 아낌없는 지원과 강진건강 10대 농수축산물 브랜드 마케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농업인이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강진군

완도군, 완도자연그대로 해변포도 첫 수확

– 청정해역 햇살·바닷바람이 키운 포도 인기 –

○ 완도군(군수 신우철)에서는 “완도 자연그대로 해변포도”를 20일 첫 수확을 시작으로 본격 판매한다.

○ 해변포도는 청정한 해안가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해변포도라 불리며 미네랄과 당도가 높아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과일로 사랑 받고 있다.

○ 올해 2월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발표한 ‘해풍의 농업적 이용가치 구명 연구용역’에 따르면 완도군의 해변포도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보다 기능성물질 (안토시안, 칼리 성분)과 당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 군은 연구자료를 토대로 포도 품질향상과 생산량 증대를 위해 포도 유기재배 시범, 간이 비가림 설치 시범 등 포도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 또한 바이오 기능수 정수장치 지원을 통해 “완도자연그대로 고품질 포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시설포도는 7월 하순, 노지포도는 8월 하순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며,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당일 수확한 포도만 판매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박태열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명품 포도생산과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완도군농업기술센터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영암 낭주멜론 일본시장 첫 수출 길

- 9월까지 90여톤 수출 계획 -

○ 친환경 황토에서 월출산 맥반석에서 흐르는 맑은 물로 재배된 고당도 영암 낭주멜론이 첫 일본 수출 길에 올랐다.

○ 박영배 군의회의장, 영암낭주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군 관계자, 멜론 출하농가 등이 참석한 이번 출하식은 군이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멜론·무화과 등 영암 농산물의 특성화 사업에 힘을 쏟은 성과 중 하나다.

○ 특히 영암군은 그동안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기술보급 평가회 개최, 멜론연구회 결성 등 다양한 노력으로 세계적인 품질의 멜론을 생산해 일본 수출에 성공했다. 낭주멜론은 오는 9월까지 총 90여톤이 수출될 전망이다.

○ 영암군은 영암멜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소득 농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특성화사업 4,000만원, 시설하우스 개보수사업 3억 3,000만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영암 낭주멜론의 품질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 중이다.

○ 이와 관련해 영암군은 이번 수출이 멜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영암 농산물이 세계화를 지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의 특성화 품목인 멜론을 일본으로 수출하게 돼 기쁘다”며 “일본 수출을 계기로 영암멜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영암멜론의 품질향상과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역색 담긴 모싯잎 송편 세계 곳곳에 홍보

– 미국·캐나다 등 북미시장 진출 활발… 중국 외식업체 겨냥 판매망 확장 계획 –

○ 지역 특산물은 전통식품의 중요한 재료가 돼 왔다. 지역에서 나는 제철 농산물은 가공·공정 등을 거쳐 새로운 부가가치를 담은 향토음식과 전통식품으로 진화를 거듭했다. 전남 영광지역에서 나는 모싯잎도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활용해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사례다. 모싯잎 송편을 만들어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수출하는 모시올영농조합법인은 지역 특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 모시올영농조합법인의 정정범 대표가 2000년대 초반 모싯잎 송편의 상품화를 주도했다. 일반적으로 떡은 본연의 맛을 느끼기엔 유통기간이 짧아 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떡을 냉동해 벌크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면서 모싯잎 송편이 지역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 모시올영농조합법인은 업계에서도 이른 시점에 해외무대로 진출, 2005년 미국, 2008년 캐나다 수출에 성공하면서 현재까지 연간 10만 달러 수준의 수출실적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가격도 10년 전 수준에서 유지하며 가격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도 바이어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부분이다. 아직까진 현지 교민을 주축으로 수출이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수출을 추진하는 등 색다른 시도를 구상하고 있다.

○ 강문원 모시올영농조합법인 대리는 “현재 미국 등은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고정적인 수요층은 교민들이 많다”며 “중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현지 업체들과 접촉을 하며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부, 시설원예 수출경쟁력 제고 나선다

–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대상자 선정… 국비 100억원 투입 –

○ 정부가 100억원을 투자해 시설원예 농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에 나선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설원예 과채류 수출량은 지난 2010년 27.6톤에서 2014년 39.2톤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최근 일정한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시설 미비, 가격 경쟁력 약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수출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원예 농가에게 온실 신개축 비용을 지원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을 신설했다. 그리고 최근 수출실적과 활용계획 등을 평가해 지원업체 6개를 선정했다.

○ 선정업체는 우포그린(2ha), 에덴농장(1.6ha), 하랑(1.3ha), 원정농산물(1ha), 부안유통새(2ha), 흥양(2ha) 총 6곳이다.

○ 앞으로 농식품부는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ICT융복합 연계 시설 등을 포함한 신규 온실 건설, 운영 및 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안형덕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세계시장 개방으로 각 국가 간의 수출 경쟁이 심화돼 경영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것이 수출경쟁력 강화의 핵심이 됐다"며 "이번 지원은 품질이 뛰어나면서도 안전한 농식품의 연중 생산을 가능하게 해, 우리 농식품 수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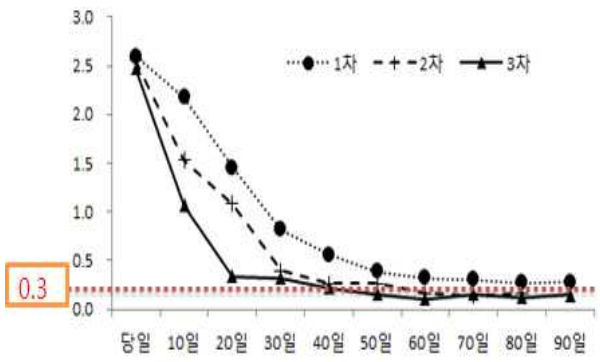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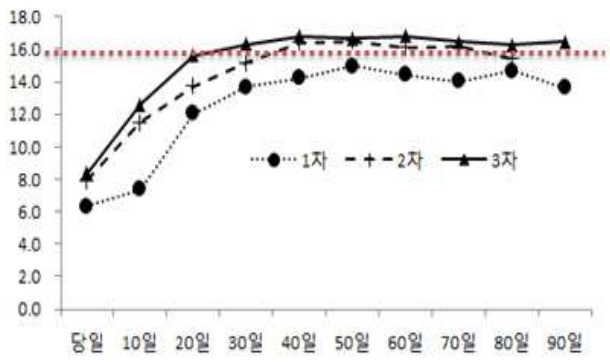
다래 '해연'의 식미 당도를 높이기 위한 수확기 당도와 저장기간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다래 '해연' 수확 시 당도가 높으면(8.4°Brix 수준), 저온(0℃) 저장 기간(경도 0.3kg/5mm∅ 이상)은 약 35일이며, 저장 후 당도 16°Brix 이상 식미감을 유지할 수 있음

○ 30일 이상 저장할 경우에는 당도 7°Brix 수준에서 수확하여야 유통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무른 과일은 선별하여 따로 분리할 것

○ 저장 시 과일이 눌리지 않도록 10cm 이내의 낮은 상자를 사용할 것

가) 경도(kg/5mm∅)	나) 당도(°Brix)
	

수확기별 저장 후 경과일에 따른 경도(좌)와 당도(우)

※ 수확 시기 및 당도는 1차(9/16, 6.3°Brix), 2차(9/24, 7.9°Brix), 3차(10/6, 8.4°Brix) 이었음

❑ 개발기술 기대효과

○ 고당도 토종다래의 적정 유통기간 준수로 소비자 만족도 향상 및 품질 안전 유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조혜성, 조윤섭

분화국화 수익성 및 전업농 경영모형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분화국화 재배 10a당 수익성 (기준 : 원/년 1기작)

구 분		금 액(원)	비 고
조 수 입	수 량 (분)	7,859	
	단 가 (원)	3,165	
	금 액 (원)	24,880,951	
비 용	중 간 재 비	12,569,379	
	경 영 비	14,858,904	
	생 산 비	18,332,131	
수 익	부 가 가 치	12,311,572	
	소 득	10,022,047	소득율 : 40.3%
	순 수 익	6,548,820	
생 산 성	노 동 생 산 성	27,419	449시간
	토 지 생 산 성	12,311	㎡당 연간토지생산성
노동시간		449	고용 226, 자가 223

○ 분화국화 전업농 경영모형 설정(1년 1기작)

경영현황	규모 : 5,534㎡(55.9a)				시설종류 : 하우스				재배방법 : 분재배				
년간 노동투하 시간					○ 연간 유동자본 : 65,802천원								
자 가	고 용		계										
1,247	1,264		2,511										
경영성과 (천원)	조수입 : 139,084				생산량 : 43,932				경영비 : 83,061				
	생산비 : 102,476				소 득 : 56,023				순수익 : 36,607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별소요 노동력(시간)	-	-	38	120	197	423	459	323	358	405	188	-	2,511

❑ 개발기술 기대효과

○ 경영불안 화훼작목 재배농가의 작목전환 영농의사 결정 정보제공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화훼농가 경영개선 상담 기준자료, 영농손실보상 자료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 화훼산업 육성 재정지원 근거 자료활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손장환, 조동호, 박 신

분화철쭉 수익성 및 전업농 경영모형

❑ 기술개발 내용 (2015년 연구결과)

○ 분화철쭉 재배 10a당 수익성

(기준 : 2년 1기작/10a)

구 분		금 액	비 고
조 수 입	수 량 (분)	7,062	
	단 가 (원)	4,842	
	금 액 (원)	34,196,201	
비 용	중 간 재 비	11,812,468	
	경 영 비	15,779,721	
	생 산 비	25,662,120	
수 익	부 가 가 치	22,383,733	
	소 득	18,416,480	소득율 : 53.9%
	순 수 익	8,988,004	
생 산 성	노 동 생 산 성	18,287	노동시간 1,224시간
	토 지 생 산 성	22,383	㎡당 연간 토지생산성
노동시간		1,224	

○ 분화철쭉 전업농 경영모형 설정(2년 1기작)

경영현황	규모 : 3,020㎡(30.5a)				시설종류 : 하우스				재배방법 : 분재배				
2년간 노동투하 시간					○ 연간 유동자본 : 21,988천원(43,977천원/2년)								
자 가	고 용	계											
2,522	1,210	3,732											
경영성과 (천원)	조수입 : 104,298				생산량 : 21,539분				경영비 : 48,128				
	생산비 : 76,884				소 득 : 56,170				순수익 : 27,413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별 소요 노동력 (시간)	1년						466	82	61	134	628	418	68	1,857
	2년	71	71	55	79	101	140	186	79	61	204	195	52	1,294
	3년	71	73	161	168	108								581
	계	142	144	216	247	209	606	268	140	195	832	613	120	3,732

주1) 월별 가족노동력 2인이 작업 가능한 노동시간 제약하의 한계, 규모 순별 노동 가능 시간 128시간 적용(2인×8일×8시간=128시간)

주2) 전업농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55,989천원 이상을 달성하는 규모임

❑ 개발기술 기대효과

○ 경영불안 화훼작목 재배농가의 작목전환 영농 의사결정 정보제공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화훼농가 경영개선 상담 기준자료, 영농 손실보상 자료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 화훼산업 육성 재정지원 근거 자료활용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손장환, 조동호, 박 신

벼메뚜기를 이용한 육계 첨가 사료

❑ 기술개발 내용(2015년 연구결과)

○ 벼메뚜기 건조 분말 1%를 육계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

- 체중 6.3% 증가, 사육기간 1.6일 단축
- 육질 내 콜레스테롤 21% 감소, 면역글로불린 A, M 78~43% 증가

○ 육계 첨가사료 급여 시 생산성 및 육질분석 (2015)

구 분	대조구	0.5%첨가	1%첨가	2%첨가
개시체중(g)	42	43	42	42
종료체중(g)	2,002	1,964	2,126	2,093
증체량(g)	1,960	1,921	2,084	2,051
사료 요구율	1.53	1.52	1.50	1.50
콜레스테롤(㎎/100g)	142.26	128.64	116.99	88.85
면역글로불린A(㎎/㎖)	0.38	0.56	0.68	0.36
면역글로불린M(㎎/㎖)	0.43	0.68	0.61	0.59

❑ 개발기술 기대효과

○ 기존 사료 및 영양제를 첨가사료 대체 시 집단폐사율 0.5% 감소

○ 경제성 분석 (육계 10마리기준)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 증가되는 비용 - 메뚜기분말 : 130,000원 - 계(A) : 130,000원	○ 증가되는 이익 - 브랜드닭 판매 : 200,000원 - 계(B) : 200,000원
○ 추정 수익액(B-A) = 70,000원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벼메뚜기 성충을 수확하여 24시간 절식 후 동결한 다음, 열풍 40℃에서 48시간 건조하여 분쇄한다.

○ 벼메뚜기 분말을 육계 사료에 1% 첨가하여 급여한다.

<사료첨가제>

<육계 사육>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잠업연구소 김현진, 강성주, 김선곤

동계작물 보리·밀 우량종자 분양합니다

- 보리·밀 등 6종 밭작물 우량종자 27톤 분양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종자관리소에서는 2016년도에 생산한 보리·밀 등 밭작물 종자 6종 27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분양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분양하는 하계 밭작물 종자는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격하게 종자검사를 거친 순도 높은 우량종자로, 채종포로 활용하는 시범단지 또는 친환경단지에 우선 분양한다.

○ 쌀보리(흰찰쌀보리·새쌀보리)가 12톤, 맥주원료로 사용하는 호품보리·청보리 종자인 영양보리가 6톤이며, 금강밀·백중밀 9톤 등 총 27톤이다.

○ 또한, 친환경인증을 받은 흰찰쌀보리·금강밀 등 1.5톤은 시·군 우수 친환경 단지에서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분양가격은 중앙단위 도매시장가격, 농협수매가 등을 참고해서 결정하며, 농가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정부 보급종 분양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할 예정이다.

○ 보리·밀 분양을 원하는 농가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한편, 전남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에서는 벼·맥류·두류 등 우량종자 395톤을 생산하여 국립종자원, 농협, 시·군 등에 유·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무화과 무가온 보온재배로 수확시기 한 달 앞당겨

– 무가온재배 보온피복재료 활용한 조기수확 현장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남 남부지역 특산 과수인 무화과의 조기수확을 위하여 비닐하우스에 다겹 보온커튼과 축열주머니를 설치하고, 보온덮개와 비닐로 터널을 씌워 보온관리를 해주면 노지재배 보다 30일 가량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어 무화과 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일반적으로 무화과의 노지재배에서는 8월 중순에 수확이 시작된다. 그러나 이때에는 시장 출하량이 많아지는 시기로 판매가격이 7월 중순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온풍난방기를 설치하고 가온을 하여 수확기를 앞당기고 생산기간을 늘려 고소득에 도전하지만 높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전남농기원 과수연구소에서는 난방비 부담없이 수확기를 1개월가량 앞당기기 위하여 다겹 보온커튼이 설치된 비닐하우스에서 1월 중순부터 소형터널을 설치하고 속에는 축열물주머니, 위에는 보온덮개와 비닐을 덮어 보온관리를 하면 노지보다 새로운 잎이 한달 가량 빨리 나오게 되어 과일의 착과시기도 앞당길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현재 시험재배농가인 영암농장은 10a면적에서 하루 50㎏이상 수확하고 있고 판매가격도 1㎏에 8,000~10,000원으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 위와 같이 형성된 거래가격은 노지재배의 출하시기인 8월 중순이나 하순에 비해 2배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재배농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기계 트랙터·밭작물작업기반 교육 실시

– 축사·농수로 정비 및 농작업은 내손으로 –

○ 전남농업기술원(김성일 원장)은 도내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밭작물 작업기에 대한 농업기계 핵심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트랙터·밭작물작업기반 교육과정을 '16. 7. 27. ~ 7. 28, 2일간 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육장과 실습포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밭작물 농업기계 활용기술 강화를 위한 체계화된 기초 이론과 실습위주 교육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양파 수확기, 비료살포기, 퇴비살포기, 소형 굴삭기 등 농업기계 작업기별 작동원리, 점검 정비기술, 현장실습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 등 각 과정별 세분화된 전문기술을 교육하게 된다.

○ 이밖에도 농업인들에게 유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교육 참가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 특히 과정별 교육에는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도 한층 높였고, 합숙교육으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생들이 농업기계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 또한 전남을 찾는 귀농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기계 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육은 농업인 및 귀농인들의 농업기계 이용 기술향상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담양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도 '농업용 드론'으로 스마트하게

○ 2016년도 군정 중요이념을 '스마트 경영행정'으로 삼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담양군이 농업분야에서도 드론을 활용, 스마트함을 더하고 있다.

○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18일 농업기술센터 벼 실증시험 포장에서 최형식 담양군수를 포함한 쌀품질연구회 회원, 들녘별 경영체 관계자, 관내 농업인,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벼농사 병해충 방제를 위한 무인항공방제기(드론) 시연회를 가졌다.

○ 이날 군 농업기술센터 류한규 친환경작물담당은 시연회 강사로 직접 나서 풍년농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잦은 강우에 따른 병해충 발생추이 설명과 함께 방제요령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 이어, 시연회에는 미래항공기술 '반디'를 비롯한 5개 드론 업체가 참여, 참여자들에게 각 기종별 성능에 대해 설명했으며, 들녘별 경영체 및 관내 농가들의 높은 관심 속에 병해충 방제 시연회가 마무리됐다.

○ 최형식 군수는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및 부녀화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드론의 이용은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에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군 차원에서 드론을 구매해 임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센터 관계자는 지난 6월 '농업용 무인 항공살포기 검정방법 및 기준'이 제정·공표됨에 따라 오는 8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성능시험 검사를 통해 드론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 후 검정받은 드론에 대해서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해 관내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담양군농업기술센터

최고의 여름 사과 썸머킹·썸머프린스 맛본다

–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에서 국산 여름 사과 품종 현장평가회 열어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국산 여름 사과 품종 '썸머킹'과 '썸머프린스'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일 사과연구소(경북 군위군)에서 현장평가회를 개최한다.

○ 이 자리에는 종묘업자, 재배농가, 유통종사자, 경매사 등이 참석해 여름 사과의 안정적 시장공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한다.

○ 평가회에서는 나무의 생장 특성 및 착과 상태 관찰과 전시된 과일의 외관과 맛 비교로 두 품종의 장·단점을 알아볼 수 있다.

○ 그동안 여름 사과는 7월 상순부터 덜 익은 상태로 출하되는 '쓰가루'(속칭 '아오리', 정상 숙기 8월 하순)가 대부분이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여름에 수확할 수 있는 맛좋은 사과 품종 육성에 노력한 결과 '쓰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썸머킹'과 '썸머프린스'를 내놓게 됐다.

○ '썸머킹'은 2011년 품종보호 출원된 것으로 2013년 봄부터 농가에 묘목을 보급해 올해 처음으로 과일이 시중에 유통된다.

○ 7월 하순부터 출하가 가능한 '썸머킹'은 당산비(당도 13~14°Brix, 산도 0.4~0.46%)가 알맞고 조직감이 우수하며 과즙이 풍부하다.

○ 과일 무게는 270g 정도이고 껍질은 줄무늬가 있는 붉은색으로 착색이 된다. 30~40% 정도 붉은색으로 착색됐을 때가 맛과 저장력이 가장 좋은 수확 적기이다.

○ ‘썸머프린스’는 2015년 품종보호 출원된 것으로 농가에서는 올 가을부터 묘목 구입이 가능하고, ‘썸머킹’에 비해 당산비(당도 11~12°Brix, 산도 0.45~0.55%)가 떨어지지만 과중이 더 크고 출하 시기가 더 빠른 장점이 있고, 출하는 7월 중순부터 가능하며, 과일 무게는 290g 정도이다.

○ 색깔과 모양은 ‘썸머킹’과 매우 유사하며, 수확도 ‘썸머킹’처럼 30~40% 정도 붉은색으로 착색됐을 때 하면 된다.

○ 평가회 이후 20~21일에는 사과연구소에서 경매사 등이 모여 사과 새 품종 개발·보급현황을 공유하고, 시장이 요구하는 새 품종 개발 방향을 찾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 이번 간담회를 통해 산지와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공영 도매시장의 경매사들이 새 품종 사과의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 농촌진흥청은 새 품종 사과 재배농가의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 여름사과 ‘썸머킹’ 품종을 재배한 농가와 대형마트와의 거래를 주선해 해당 농가에서는 7월 말 전량 대형마트에 출하할 예정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썸머킹

▲ 썸머프린스

친환경 과수 재배기술, 새로운 길 열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소(소장 정우진)는 친환경 과수 재배를 위해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방제하는 미생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 전남대 친환경농업연구소 김길용 교수가 10년여 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젤라틴/키틴 분해 미생물(GCM)은 곰팡이, 유충 등에 함유된 젤라틴과 키틴을 분해하여 병해충을 생물학적으로 방제하고,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 이 미생물을 복숭아 재배농가에 적용한 결과, 비용은 관행재배 대비 3분의 1 수준인 ha당 약 70만원(관행 약 2백만원)이 드는 반면, 생산량은 관행보다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험재배에 참여한 귀농 6년차 배회춘 부부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복숭아에 많이 발생하는 진딧물, 복숭아심식나방, 탄저균 등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관행재배보다 낙화율도 낮다"며 특히 병해충에 취약해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복숭아를 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다는 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이번 미생물 개발의 성공으로 금년부터 추진되는 '한국형 친환경 표준 재배기술 및 유기가공식품 첨가물 생산기술 개발'('16~'20, 46억원) 연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벼·블루베리·딸기 등 품목별 친환경 표준 재배기술의 정립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효과 검증을 위한 생물 다양성 조사, 분석 유기가공식품 천연색소와 유통기한 연장 기술 연구개발로 친환경 농식품의 부가가치 창출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정책 동향

◈ 농촌교육 활성화 협약

– 도교육청 - 전남농기원 - 농촌교육농장협의회 농촌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지난 20일 전남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촌교육농장협의회와 농촌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단체)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1학교 1농장 자매결연 추진 △우수 교육·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장 시설물 및 식품위생관리 등 12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특히 앞으로 추진하게 될 1학교 1농장 자매결연은 도내 초등학교 중 41%를 차지하는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체험프로그램을 농촌교육 농장주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운영하여 작은 학교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게 된다.

○ 이날 협약식에서 김성일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농촌이야 말로 자연이라는 교과서로, 교실 밖에서 아이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곳”이라며 “작은 학교와 농촌교육농장 자매결연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접목해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불량부적합비료의 유통을 차단하여 농지의 오염과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비료품질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7.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 이 같은 조치는 가축분, 음식물류폐기물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퇴비 품질에 대한 시비가 그동안 제기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 관리하려는 취지이다.

○ 농식품부는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비료업체의 제품 생산,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유통검사, 검사결과 부적합비료에 대한 행정처분 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비료업체가 비료원료, 생산 및 판매실적을 비료품질관리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자체의 비료검사 공무원은 업체에서 어떤 원료를 얼마만큼 넣어 비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 www.agrix.go.kr(농림사업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비료품질관리 선택)

-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참여업체는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7년부터 의무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그 외 업체는 희망에 따라 실시할 계획

○ 또한, 시·군·구청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반 시에 행정처분, 조치결과 등도 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폭염… 가축 질병 방역관리 철저를

– 전남도, 가축질병신고센터 운영 등 대책 강화–

○ 전라남도는 최근 무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폭염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질병신고센터 운영 등 '여름철 가축 질병 방역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 전라남도는 '여름철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인 8월까지 시·군 등 가축 방역기관에 여름철 가축질병신고센터 25개소를 운영하고, 여름철 가축 질병 방역관리 홍보전단을 배부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여름철에는 가축들이 더위 스트레스로 사료 섭취량이 줄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열사병 등에 의한 폐사 위험이 높아지므로 축사 내부를 적정 온도(25℃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사료를 수시로 확인해 부패한 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가축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축사 지붕과 운동장에 차광막을 시설하며, 실내에는 대형 선풍기 등을 설치해 충분한 통풍과 알맞은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 가축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물과 소금, 비타민과 광물질을 충분히 공급해 가축이 스트레스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한육우는 30℃, 젖소, 돼지는 27℃, 닭은 30℃ 이상이 되면 고온 피해가 발생하므로 과밀사육을 금지하고, 신선한 공기와 사료를 공급하는 등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립 불능 등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하면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국번 없이 1588 - 4060)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한우 사육, 번식 위주 일관사육 체계로 전환을

-전남도, 가격 오름세…무계획적 입식 자제, 한우 개량 등 안정대책 지도-

○ 전라남도가 최근 한우 가격 오름세가 계속됨에 따라 한우농가들에게 무계획적 입식을 자제하고, 비육우 사육 위주에서 벗어나 한우 개량 및 암소 번식까지 함께 하는 일관사육 체계로 전환하도록 지도 관리키로 했다.

○ 2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우 가격 오름세와 함께 송아지 가격도 400만원대로 높아 재입식에 대한 부담이 커진데다 사료비까지 올라 축산농가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 한우 가격 오름세는 2016년 6월 말 현재 전국 한우 사육수가 274만 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천마리가 줄었기 때문으로 높은 가격대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 실제로 한우는 산지에서 18일 현재 큰 소(600kg) 암컷이 606만원, 수컷이 7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각각 511만원, 657만원보다 18.6, 11.1% 오른 값이다. 1년 전 6개월짜리 암송아지는 264만원, 수송아지는 316만원이던 것이 각각 325만원과 400만원으로 평균 24% 올랐다.

○ 한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는 2013~2014년 축산 선진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소규모 축산농가가 폐업하면서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남의 경우 2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 3천 300호가 폐업해 3만 6천 마리가 줄면서 송아지 생산번식 기반이 약화됐다.

○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한우 산업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한우 일관사육(번식 위주) 체제로 전환 홍보강화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개량사업 확대 추진 ▲우량송아지 생산번식 기반 확보를 위해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과 연계한 우량송아지 생산공급체계 구축 등 한우 사육기반 확대를 위한 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현재 한우 가격이 좋다고 무계획적으로 송아지를 입식하면 출하 시점인 2년 후 가격 보장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송아지 입식 시 축산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축산농가들은 무계획적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는 한편, 일관사육(번식)을 위한 계획된 입식과 함께 고급육 생산을 위한 한우 개량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8. 해외 농업정보

◈ 미국 GMO표기 의무화 눈앞

– 미국 상·하원 통과 오바마 대통령 서명 예정… 표기방식 등 후속조치 대비해야 –

○ 미국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의무화 법안을 곧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미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미국의 다수 언론 매체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지난 7일 GMO 표기 의무화 법안을 찬성 63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도 지난 14일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6표, 반대 117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이후 즉시 발효되는 GMO 표기 의무화 법안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 영문이나 그림 또는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코드 등 세 가지 형태 중 하나로 GMO 함유 사실이 고지돼야 한다.

○ 우리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되는 농식품 중 GMO 식품물량은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미국 식품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식품업체들이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GMO 표기 의무화 법안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전문가들은 관련 제도를 역이용한 마케팅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최근 건강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비유전자변형(Non-GMO)제품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출 농식품의 라벨링 및 포장에 'Non-GMO'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표기한다면, 안전성 측면에서 좋은 마케팅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간식·냉동식품, 중국시장 진출 유망

– 현지 식품시장 트렌드 주도 젊은 여성층 타깃으로 간편·건강 제품 수출 필요 –

○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우리 농식품의 꾸준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선호할 만한 간식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냉동식품의 수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전 세계 세관통계 데이터를 모아둔 '유엔 컴트레이드(UN Comtrade)'에 따르면 중국 수입식품시장은 지난 2006년 110억달러에서 2010년 240억달러, 2015년 562억달러로 10년 사이에 급격하게 성장했다. 중국에서 자국산 식품에 불신을 품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입식품을 찾는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 중국 수입식품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농식품은 우리나라와 일본산 제품이다. 중국 리서치기업 제일재경 상업데이터센터(CBNData)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체 수입식품시장의 31%를 차지하는 중국의 주요 식품 수입국이라고 발표, 현지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Alibaba)는 2015년 취급한 수입식품의 주요 공급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꼽았다.

○ 중국의 젊은 여성 소비자들은 간편하면서도 건강하게 즐기는 간식과 냉동식품에 특히 관심이 높다. 또한 제품 원료 및 효능과 관련된 설명을 꼼꼼히 따지는 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해, 제품 특징 및 영양성분 등의 정보를 제품 포장에 상세히 게재해야 하고, 여심을 공략할 수 있도록 포장을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고,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배너광고 등 홍보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SNS 마케팅을 병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6. 07. 25.(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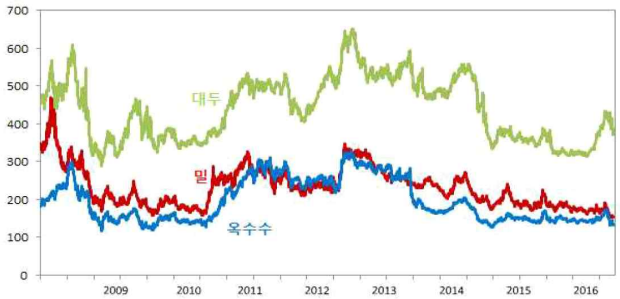
미국 중서부 지역의 충분한 비 예보에 의한 대두 선물 가격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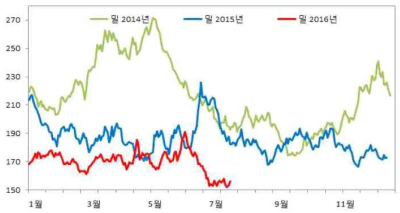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6.07.22)	전일대비	전월평균 ('16.6)	2015 평균
밀	156.23	▲1.8%	174	186
옥수수	131.88	▲0.2%	161	148
대 두	369.78	▼2.5%	421	347

주)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 9월물 대두 : 8월물) 정산가격임.



밀 선물시장 시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가격은 기술적 매수로 인해 전일 대비 1.8% 상승 마감하였음. 그러나 풍부한 국제 공급량에 의해 그 상승폭은 제한 적임. 한국의 CJ 제일제당 기업은 48,750톤의 밀을 구매하였음. USDA에 따르면 7월 21일 밀 317,700톤이 수출 판매되었는데 이는 교역자들의 예상범위인 400,000~600,000톤보다 낮은 수준임.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적색 연질밀 가격은 부셸 당 $4.25에서 약 7센트 상승하였음.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주 말에 앞서 투자 펀드 약세장이 마무리 되고 주 초반의 약세를 회복하며 전일 대비 0.2% 상승 마감하였음. 또한 매도커버가 예상이 되면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USDA에 따르면 7월 21일 옥수수 1,355,600톤이 수출 판매되었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옥수수 선물 가격은 부셸 당 3.71에서 약 3센트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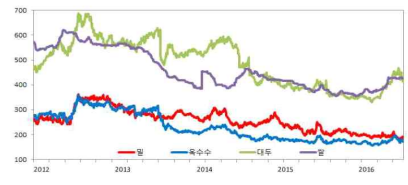
대두 선물시장 시황

미국 중서부 지역의 충분한 비가 예보되었고 또한 수확 기대치가 상승하면서 대두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2.5% 하락 마감하였음. 지난 밤 대두 선물 가격은 4월 25일 이후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였음.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대두 가격은 부셸 당 $9.91에서 약 20센트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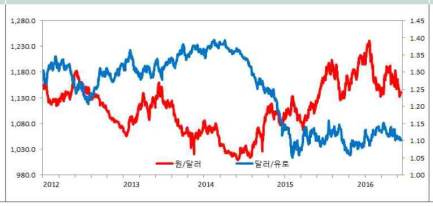
관련동향

- 대두 베이시스는 약화되었으나 밀과 옥수수 프리미엄은 보합세 유지.
- 22일 국제유가는 미 달러화 강세, 이라크 석유 수출 증가, 미 원유 시추기 수 증가, 중국 휘발유 수출 증가 등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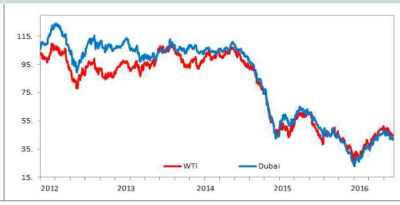
곡물 수출가격 (FOB)



환율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179	▲1.1%	환율	원/달러	1,140.2	▼0.1%
	옥수수	172	▼0.6%		달러/유로	1.1029	▲0.1%
	대두	417	▲0.5%	국제유가	WTI	44.19	▼1.3%
	쌀	426	–		Dubai	41.63	▼2.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9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6.07.21(수출가격), '16.07.22(환율), '16.07.22(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Daily World Grain Report

E-mail : wonjeong@krei.re.kr (해외곡물시장 담당자)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올해 파종할 보리·밀 보급종 신청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은 올 가을에 파종할 '16년산 보리·밀 보급종을 7월 25부터 8월 23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상담소)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

○ 신청 대상품종은 겉보리 307톤(올보리 103, 큰알보리1호 204), 쌀보리 1,061톤(새찰쌀 62, 재안찰쌀 136, 흰찰쌀 747, 새쌀 116), 청보리 409.3톤(영양보리 405, 우호보리 4.3), 밀 449톤(금강 109, 백중 154, 조경 91, 수안 95) 등 총 12품종 2,226.3톤이다.

○ 정부 보급종은 소독처리 후 종자를 공급하나, 미소독품의 경우는 소독약제 처리를 하지 않고 공급되므로 종자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 또한 지역 간 신청가능 품종 및 물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종자 신청·접수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 겉·청보리, 쌀보리, 밀의 공급가격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및 타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결정하였다.

- '16년산 보리·밀 보급종 공급가격 -

구 분	겉보리/청보리	쌀보리	밀
소독품(원/20kg)	27,220	27,850	28,780
미소독품(원/20kg)	25,790	26,420	27,350

○ 아울러 신청한 종자는 파종기 이전인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지역농협 또는 축협을 통하여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 기타 보급종 신청·공급과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리·밀 품종별 특성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054-912-0187)에 문의하거나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GAP농산물, 이제부터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이하 농관원)은 GAP농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GAP농산물 생산유통 현황' 자료집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 자료집에는 지역별 GAP농산물 및 참여 농가, 주요 산지의 수확 후 관리시설별 출하시기와 출하량, 연락처 등의 정보를 수록함으로써 누구나 GAP농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작된 자료집은 GAP농산물의 수요자 확보와 생산농가의 판로 지원을 위해 시도 교육청, 대형유통업체 및 급식전문업체, 식품산업 협회 등 농산물 유통업체 등에 집중 배포할 계획이라며,

○ 그동안 GAP농산물의 생산 및 출하정보 부족으로 유통업체의 참여가 미흡했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유통 활성화를 통한 GAP농산물의 생산 확대를 견인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생산자 측면에서도 다양한 판매처로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안정적인 출하를 담보할 수 있어 GAP농산물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앞으로 GAP농산물의 생산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생산·유통 현황 자료집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작 배부할 예정"이라며 합리적 가격에 안전을 더한 GAP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당부하였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해외여행 “망고 등 열대과일은 No!”

– 농림축산검역본부 '16. 7. 25. ~ 8. 7. 특별검역기간 운영 –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열대과일 등 휴대식물류 반입 증가에 따른 해외 악성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16. 7. 25. ~ 8. 7.까지 2주간에 걸쳐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서 해외여행객이 많이 입국하는 시간대에 검역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X-ray 등을 활용한 검색 활동도 한층 강화한다.

○ 특히, 금지품 상습 반입자, 계고장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검역 스티커를 훼손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검역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외국인 거주 지역 주변시장 등에서 휴대로 불법 반입된 열대과일 등 금지품이 판매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지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열대과일(망고·여지·망고스틴 등) 등 수입 금지품 123톤에 대해 압수 폐기하고, 1,343명에 대해 과태료 1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망고 등 대부분의 열대과일이 수입 금지되어 있으므로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하여 한다”고 말하며, “해외로부터 식물류를 가져올 경우에는 공항만 입국장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전남농업정보 95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